

새로 나온 책

▶바람에 발효된 섬의 사유(송미아 지음)=제주 태생 작가가 청소년문학 독서 평론집을 펴냈다. 책은 5장으로 구성돼, 16편의 평론을 담고 있다. '제주어 용례 사전'을 비롯해 4·3과 해녀, 환경, 설화, 작곡, 사진, 영화, 그림일기 등 다양한 텍스트를 '독서'의 범주로 확장했다. 저자는 청소년 독자들이 서로 다른 텍스트를 연결하며 사유의 길을 열어가길 바라는 뜻을 책에 담았다. 한그루. 2만2000원.

▶우리 삶이 시가 될 때(MBC 라디오 여성시대 지음)=국내 최장수 라디오 '여성시대'가 방송 50주년을 맞아 첫 필사집을 펴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청취자들이 보내는 편지와 '월간 여성시대' 에세이, '신춘편지쇼' 당선작 가운데 마음을 울린 100편의 문장을 엄선했다. 평범한 이웃의 삶부터 박완서·나태주 등 작가들의 글까지, 위로와 공감의 문장들이 다섯 장에 걸쳐 이어진다. 김영사. 2만1000원.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이승헌 지음)=뇌교육 자이자 명상가인 저자가 한국인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인 '장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60대 후반에 접어든 저자는 삶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찰한다. 이 책은 '어떻게 완성된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노년의 삶을 주제적으로 설계하고 마무리해 가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다. 한문화. 2만원.

▶질문으로 배우는 이성동화(권은오 지음·이육남 그림)=아이들이 교실과 가정에서 마주하는 생생한 갈등 상황을 흥미로운 동화로 풀어내고,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이성 길잡이책. 자존감과 성실함을 다룬 이야기부터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을 법한 문제 상황과 그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옛이야기까지 모두 20편을 담았다. 정작과 공정, 배려 등 삶의 태도를 익힐 수 있다. 함께. 1만4300원.

▶고영희 여사의 고만고만한 행복 찾기(진실희 지음·그림)=왕년에는 '전설의 낚시꾼'이었던 이제는 고등어 잡던 지역도 희미한 고영희 여사.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입질, 팽팽한 대결 끝에 손에 쥔 것은 작은 고등어 한 마리뿐. 하지만 이웃과 나눠 먹는 소박한 저녁 속에서 고 여사는 진짜 행복을 만난다. 크지 않아도 충분한, 늘 곁에 있는 행복을 유쾌하게 그린 그림책이다. 이야기꽃. 1만6800원. 김재현기자

이 책!

뤼디거 자프란스키의

『개인의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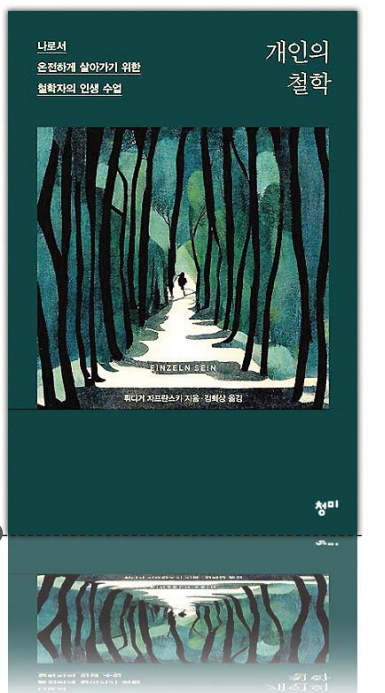


‘같음’을 요구하는 시대, 철학이 묻는 ‘다름’

좋아요의 개수가 존재의 무게를 재는 시대. 트렌드의 속도가 사유의 깊이를 대신하는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연결돼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라는 고유한 개인은 그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흐려지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전기 작가인 뤼디거 자프란스키의 신작 '개인의 철학'은 이 지점에서 현대인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어떻게 나, 개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프리드리히 니체상, 토마스 만상 등 세계적인 문학·철학상을 수상하며 '하이데거', '니체', '쇼펜하우어' 등의 평전을 펴낸 저자는 이번 책에서 르네상스부터 20세기 실존주의까지, 500여 년에 걸친 서양 지성사를 관통하며 '개인'이라는 개념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탁월한 문체로 추적한다. 이는 단순한 철학사 요약이 아니라 인물 열전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회가 개인을 어떻게 둘러싸 왔는지,

그리고 개인이 세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다시 세웠는지를 탐구하는 장대한 지적 여정이다. 저자는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와 예술가들을 소환해 역사적 맥락과 함께 '나라는 개인'의 궤적을 그린다. 신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을 자각했던 르네상스의 인간들과 신 앞에 홀로 선 인간의 근원을 제시한 루터는 근대적 개인의 서막을 알렸다. 특히 봉테뉴는 외부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 성찰의 시초를 열었고, 루소는 개인과 공동체가 충돌하는 복잡한 윤리적 지형을 포착했다. 책은 근대를 넘어 현대의 문턱에서도 개인을 조명한다. 소로는 율든 호숫가에서 홀로의 삶을 실험했으며, 한나 아렌트는 인간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존재'로 재해석했다. 사르트르는 전쟁과 부조리의 시대 속 개인이 어떻게 실존의 선택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지를 제시했다.

자프란스키는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을 관통하는 질문, 즉 "개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로서 존재하는가?"에 주목한다. 그는 독자들을 철학사 속 개인이라는 개념의 '탄생-위기-전환'의 여정으로 초대하며, '나다움'조차 새로운 소비기준이 되고, 비교와 자기 연출이 강박이 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철학적 위로를 건넨다. 결국 자프란스키가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느림의 사유'다. 그는 미지와 속도가 사고를 대신하고, 타인의 시선이 정체성을 대신하는 세계에서 느리게 생각할 용기를 주문한다. 외부의 잣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처럼 자신의 방향을 가리키는 태도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다. 느림의 사유 속에서 개인은 다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세계와 관계 맺는 법을 배우게 된다. 청미. 2만8600원.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언제나 그 어떤 공동체에 속하면서도 스스로 홀로 설 줄 알아야 함을 뜻한다”

- 서문 중 -

비틀린 욕망이 부른 파국

박해동 '블랙 먼데이'

타인을 내 뜻대로 조종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욕망. 그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파괴 분능일까. 2025년 제13회 수림문학상 수상작인 박해동 작가의 장편소설 '블랙 먼데이'가 출간됐다. 소설은 겉보기에 평범한 엘리트지만 내면은 결핍과 집착으로 얼룩진 한 남자의 파국을 치밀한 심리 묘사로 그려낸다. 소설의 중심에 선 인물 '연수'는 28세의 영문학 박사과정생이다. 학위 논문 발표를 앞둔 그는 표면적으로는 지적이고 성실한 연구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번듯한 가면 뒤에는 어린 시절 죽은 형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 성적 성숙장애, 그리고 편집증적 사고가 뒤엉킨 위태로운 내면이 도사리고 있다. 연수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동력은 아버지의 제자이자 자신의 과외 교사였던 '현진'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이



일상을 훑쳐보는가 하면, 급기야 현진의 아내 '가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가까워진다. 소설은 연수와 현진의 갈등을 그리며 인간 내면의 어둠을 마주한다. 작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욕구가 어떻게 악(惡)으로 변모하는지, 그 악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잠식해가지를 서늘한 필치로 보여준다. 이승우 소설가는 추천사에서 "욕망이 유일한 목적이고 구실인 사람이 타인과 세계와 자신을 어떻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지 보여 주는 생생한 임상 사례와도 같은 소설"이라고 평했다. 광화문글방. 1만6800원. 김재현기자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생태위기

조호제 '불타는 지구에서 ...'

지난해 우리를 충격에 빠트린 대형 산불, 해마다 갱신되는 살인적인 최고기온, 지구는 이제 '온난화'를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가열'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국내 인권학자 조호제 성공회대 명예교수가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는 신작 '불타는 지구에서 다르게 살 용기'를 펴냈다. 조 교수는 기후위기를 단순히 환경문제나 에너지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다. 그는 작금의 위기를 자본주의의 무한 성장 추구와 인간중심주의가 결합해 만들어진 총체적 '사회생태위기'로 인식한다. 특히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며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책은 눈앞의 불만 끄는 식의 응급처치가 아닌, 정치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 생



산과 소비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과감하게 자본주의 문명에서 벗어나 '다르게 살 용기'가 필요한 이들을 북돋아준다. 사회생태주의, 탈성장, 신유물론 등 각계에서 제안한 위기 돌파의 서사도 설득력있게 종합하며 문명전환을 위한 통합적 서사를 전개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이들에게 당장이라도 필요한 힘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가장 친절하고도 자상한 전환 안내서이다. 조 교수는 "눈앞의 기후대응을 넘어 문명전환을 위한 이행과정에 초점을 맞춰 읽어달라"고 당부했다. 창비. 2만4000원. 김재현기자

취 임

제주향교 제34대 전교



진 인 수
(전국향교전교협회회장)

제주향교 제34대 전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향교 유림일동

승 진

부이사관



김 영 준

부이사관(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난산리 가족 일동

수 상

대통령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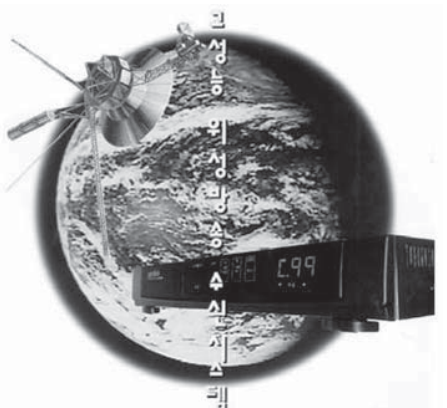


양 일 성
(제주로타리클럽 제56대 회장)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로타리클럽 회장 라상균 외 회원 일동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압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